

전북교육-충남교육, 미래교육 정책 공유

도교육청, 충남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기초학력·에듀테크 등 5개 분과 나눠 진행

전북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에서 충남도 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는 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제안을 김지철 교육감이 받아들여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과 30여 명의 전북교육청 직원들이 충남을 찾았다.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책협의회는 △미래교육 △기초학력 △교과 △에듀테크 △학교혁신 등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분과별로 '충남미래교육2030'과 온체인 교육융합플랫폼 시스템, 충남미래교육융합플랫폼 미주온 등 충남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됐고, 참석자

들은 서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 등 정책을 공유했다.

정책협의회 이후 전북교육청 직원들은 충남이산과학교육원을 찾아 제1회 지능정보기술 융합수업 특별전을 관람하고, 3개 학교가 통합된 정산중학 교로 이동해 학교 교육과정 등을 살펴봤다.

김지철 교육감은 "오늘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교육 정책의 성장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충남과 전북은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양 기관의 좋은 정책을 공유해 대한민국의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에서 충남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전산실에서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활동의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활동의 이해’

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전산실에서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활동의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보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지원단 교사 및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

스템 활용 및 교사의 다양한 학습지원 콘텐츠 활용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별 단위학교 업무담당 대상의 교사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주현화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기초학력 향상지원 콘텐츠를 이해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자료 활용을 극대화 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기초학력 지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미래인재 양성 손 맞잡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 신청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미래인재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13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SW교육 환경을 구축해 정보 소외지역 초·중등 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8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북지역 SW미래채움 센터를 구축하고, SW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300명의 SW전문 강사를 양성해 찾아가는 SW교육을 운영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SW교육 환경 조성, 정보 소외지역의 SW교육 기회 확대, SW교육 전문강사 체계적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에게 SW·AI교육 기회 확대, 찾아가는 SW교육 제공, 교육프로그램 구성, SW 캠프 등 자생적 SW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SW교육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SW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확보, 지방비분담금 예산 수립 확보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을 주관한 (재)전북테크노파크는 SW교육강사 양성, SW미래채움센터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SW/AI 교육장비 및 교구재 구매,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보고, SW강사 양성 및 교육문화 등을 통해 SW교육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은 전북 미래교육의 기본 역량"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정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SW교육 기반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임용, 국무회의 통과

대학 측 "임기 시작은 아직 미정"

14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 임용 후보자의 임명 제청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총장으로서의 공식 임무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임기 시작일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양오봉 교수는 지난해 11월 23일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최종 60.94%를 득표해 1순위 임용 후보자가 됐다.

한편 양 교수는 전주교과고 교수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북대 교수로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 단장, 에너지-AI 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 단장 등을 지냈으며, 새만금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회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학생·교원·학부모 생명존중의식 함양

도교육청,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위기학생 조기 발굴 지원 나서기로

전주·군산·익산지역 중심 총 4회 걸쳐 관계·회복 중심 생활교육 강화

위기학생 학교생활 지원 ADHD진단·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위기학생 조기 발굴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4일 정성환 과장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 등 취·진학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주·군산·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구 및 역할극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외의 역량있는 전문 연구단체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에도 만

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소통 및 관계 회복을 위해 학교상담실과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을 1곳 더 추가해 모두 21개 기관을 가해학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도 5곳을 추가해 총 17곳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군 학생의 치료비를 위해 최대 300만원을 학생의 자살(해시도)진여후 치료비도 1인당 최대 450만원까지 각각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주의력 결핍(ADHD) 진단 및 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마음치유 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심리적 고위

기 학생의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전북대·원광대병원 등 병원형 위(Wee)센터 2곳과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2개 기관을 각각 운영한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상담·진단에 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위기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보호자, 교사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심층 평가와 함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 과장은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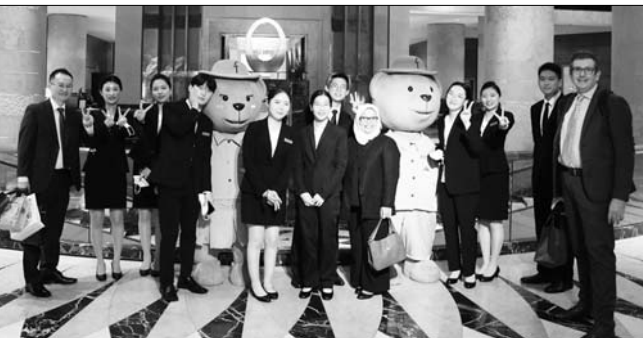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해외 호텔 방문 면접... 지원자 6명 전원 합격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 6명이 해외 호텔 방문 면접을 통해 전원 취업했다고 14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6~9일 실용국 교수와 미카엘 교수 등 인솔 교수 2명과 학생 6명이 함께 싱가포르 현지 호텔을 직접 방문해 취업 면접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5성급 호텔에서 진행된 방문 면접에서 박지연 학생 등 지원 학생 6명 모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앞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이번 현지 방문 취업 프로그램을 위해 영어면접으로 학생 6명을 선발하고, 여러 차례 모의 면접을 보는 등 교수진과 학생이 함께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면접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박지연 학생은 "해외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면접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호텔 면접관들이 편안하게 해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호텔경영학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6~9일 실용국 교수와 미카엘 교수 등 인솔 교수 2명과 학생 6명이 함께 싱가포르 현지 호텔을 직접 방문해 취업 면접을 진행했다.

과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합격자들은 오는 27일부터 현지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실용국 교수는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호텔 현장에서 직접 취업 면접을 진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도교육청, 오늘 202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2023학년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강사단은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또 학습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지적·학문적 한국어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어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연수는 한국어교육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을 비롯해 전북 다공교육정책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방침에 대한 안내와 안전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 과장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양서연)은 2023년 1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관에 따르면 문화예술, 독서, 수영, 평생교육 등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총 77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특히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문해력 쑥쑥! 등 디딤돌 독서교육 5과정과, 호기심 과학이벤트 영어 등 학력향상 교육 6과정, 청소년 앱제작 등 디지털 활용을 위한 미래역량 교육 7과정을 편성했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상담·진단에 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위기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보호자, 교사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심층 평가와 함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27개 프로그램은 오는 21일부터 군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bc.go.kr/gc/>)을 통해 하면 된다. 문화예술 교육 482명, 독서교육 124명, 수영교육 120명, 평생교육 384명 등 총 1,11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양서연 관장은 "전북교육 대전환에 발맞춰 예술감수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독서교육 실현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제45차 NEAD 콜로키움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흥원익 원장을 초청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제45차 콜로키움을 15일 교내 송산기린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흥원익 원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를 짚어보았으며 70여년 전 한국 전쟁을 되짚는다. /익산=이재훈 기자